"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

김동연 부총리 예방 받은 총무원장 스님 입장 재확인 "종교형편 맞게 논의" 당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8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 부총리의 예방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선 자리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종교인 과세 문제에 있어서) 총무원장 임기 8년 동안 한 번도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서 "다만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의 급여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 형편에 맞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교계 내에도 각 종단마다 급여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도 논의하고, 타 종단과 비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행해도) 불교계는 어려움이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는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총무원장 스님 말씀을 유념해 각 종교계 특성이나 과정 등을 고려해 준비하겠다"며 "이러한 소통 기회를 통해 항상 겸손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 잘 하겠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지난 8월30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합장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종단 사업지주회사 도반HC 행사전문 '스태프미래' 인수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 기대"

종단 재정구조 다변화에 앞장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도반HC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사기획대행 전문 업체인 '스태프미래'를 자회사로 인수했다. 총무원 사업부장 각운스님과 김용환 도반HC사장, 이상종 스태프미래 대표는 지난 8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사업부 사무실에서 자회사 등록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지난 7월19일 이사회에서, 종단차원의 기획행사 추진과 행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회사로 행사기획 대행사를 설치키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반HC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연등축제를 비롯한 봉축행사와 산사음악회 등 교계 행사대행의 발전을 도모해 온 스태프미래와 협약을 갖기로 했다. 도반HC는 스태프미래 주권을 일정부분 인수하고, 도반HC 자회사로 편재해 보다 안정적으로 해당 분야의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종단을 비롯한 전국 사찰 등에 보다 수준 높은 행사시행을 지원한다.

도반HC는 이날 조인식을 계기로 불교 문화콘텐츠 보급 발전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또한 연예계 불자협회와도 협력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감으로써, 교계 문화행사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총무원 사업부장 각운스님은 "종단 발전과 포교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종단 미래와 포교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일선 사찰들의 행사기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종 스태프미래 대표도 "20여 년 간 종단을 비롯한 산하단체와 사찰 등의 크고 작은 행사기획에 참여했다"며 "불교에 문화 관련 소프트웨어가 많은데, 앞으로 종단과 함께 문화콘텐츠를 체계화하고 보다 전문성을 겸비한 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사찰음식문화 체험 외국인 417% 증가"

템플스테이 동참도 33% 증가
문화사업단, 뉴욕 홍보행사 등
평창올림픽 성공위해 힘 보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문화 체험 외국인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스님)은 지난 8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대비 상반기 템플스테이 외국인 참가자가 33% 증가하고, 사찰음식문화 체험 외국인이 417%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템플스테이 외국인 참가자는 3만204명(연인원)인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에 4만261명이 동참해, 연간 7만명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개관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은 지난해 전반기 115명에서 올해는 지금까지 595명의 외국인이 참여했다. 내국인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템플스테이 참가 내국인은 2016년 상반기 19만9111명에서, 올해는 21만549명으로 5.7% 증가했다. 사찰음식문화 체험 내국인은 2138명에서 2417명으로 13% 늘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전통과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낙산사, 백담사, 삼화사, 신흥사, 월정사 등 5곳에서 '(외국인 특화) 특별 템플스테이'를 내년 3월31일까지 실시한다. 성공적인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위해 각 사찰에 1인 이상의 외국인 실무자를 배치하고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단장 수암스님은 "성공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역과 사찰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템플스테이와 함께하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행사도 갖는다. '템플스테이 -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여행, 사찰음식 -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음식'이란 주제로 진행한다. 뉴욕 원각사, 불광선원, 조계사와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등에서 '템플스테이 워크'를 갖는다. 스님과의 차담, 연꽃지화만들기, 명상, 사찰음식 만들기 등으로 한국전통 문화의 향기를 선사한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체험, 전시 및 홍보영상 상영, 사찰음식 강연, 사찰음식 만찬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단장 수암스님은 "지속적으로 한국불교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려 산사에서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받을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으로 세상이 밝아지고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더 없이 좋은 일"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템플스테이에 이어 한국의 전통사찰음식을 체험하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교문화사업단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사진은 광주 증심사 앞마당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하며 전통문화를 즐기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표단.

불교신문 자료사진

자질 논란 중기부 장관후보

종평위, 지명철회 촉구 성명

창조과학회 활동과 뉴라이트 사관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박성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지난 8월30일 성명을 내고 박 지명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종평위는 성명에서 "(박 지명자가)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해 과학자로서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과거 서울시장과 포항시장이 성시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을 예로 들며 공직자의 종교적 신념은 자칫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박 지명자가 2015년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8월15일 건국절을 주장"하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등은 친일, 친미, 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사관과 비슷"해 사회적 갈등과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지명자는 8월31일 자신에게 제기된 창조론과 뉴라이트 사관 문제에 대해 해명기자회견에서 사과했으나 자진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8월30일 종무회의)

정법스님 성남 망경암, 자엄스님 경주 수곡사, 상진스님 서울 반야정사, 지성스님 서울 불국사, 성관스님 의정부 용현사, 덕운스님 원주 죽림사, 법륜스님 서산 법등사, 선봉스님 인천 영덕사, 일우스님 안성 성덕사

보정스님 창원 자운사, 범우스님 금산 극락사, 선공스님 대구 다복사, 덕조스님 제주 약천사, 덕관스님 경산 불굴사, 지윤스님 대구 묘광사, 원천스님 김해 선지사, 심산스님 부산 홍법사

'종단 전법사 위촉·지원'

종령 제정안 입법예고

종단이 전법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젊은 스님들을 육성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을 지난 8월28일 입법예고했다. '전법사'는 △계층별 지역별 △문서 방송 SNS 등 미디어 매체 △교육, 문화, 상담 및 복지 △해외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불교의 사회적 외연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2급 전법사는 4급 승가고시 합격자 이상, 1급 전법사는 2급 전법사 중 3급 승가고시 합격자 이상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해 교구본사 및 사찰은 전법사가 전법포교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원은 각급 전법사를 대상으로 전법포교활동에 관한 교육과 사업을 진행한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30점 인정과정

2017년 연수교육 사찰음식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사찰음식의 정체성 확립 및 원형보존과 전승체계 정립을 위한 사찰음식 승가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찰음식에 관한 전문가 스님을 양성하고, 사찰음식 특화 사찰로 지정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음식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이론강의 : 경전 속의 사찰음식 이해, 사찰음식의 정신과 가치, 사찰음식의 치유기능
▶실습강의 : 메뉴 실습 (사찰음식 원형 재현 메뉴, 치유식, 계절메뉴)

● 교육일정 : 2017. 9. 15.(금) – 17.(일) (음7월25일 – 27일) 3일간
● 과정 :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찰음식 승가교육
● 장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 정원 : 선착순 30명
● 접수방법 : Tel 02) 3411–8103~4, 010–6844–5753
Email boj57@hanmail.net
(예 : 사찰음식 승가교육–법명(사찰)–전화번호)
● 참조 : 전국비구니회관 홈페이지(www.kbiguni.org)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 후원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